

새로운 한미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
2007년 5월 4일, 서울

정세현 장관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 이른 아침 시간에 한미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며, 토론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서로 연관된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치면 이 주제들이 서로 겹쳐지는 원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한미관계는 어떠한가? 간단히 대답하면 동북아시아와 미국간 관계의 중요한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한미관계는 얼마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물론 아직 양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과 한미 군사동맹의 현대화 작업에서 최근 이루어진 진전 덕분에 매우 굳건한 상태입니다.

둘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상황은 어떠한가? 간단히 대답하면 현재 안타깝게도 비핵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2.13 합의는 2005년 체결된 9.19 공동 성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효하며, 이 두 가지 모두 앞으로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심화된 대북 포용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간단히 답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 포용정책을 지지하며, 비핵화와 포용 정책이 서로 조율된 방식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이 북한내 실제 상황에 대해 갖는 관심을 효과적인 포용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은 동북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간단히 답하자면 우리는 이지역 국가들의 날로 밀접해지는 경제 관계가 보다 강력한 정치적인 통합과 신뢰로 전환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죠. 한미 관계는 아주 굳건한 상태로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10개월간의 힘들었지만 공정한 협상을 마친 후 양국 정부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의 관세 대부분이 즉각 철폐되고, 양국간 수출이 증가하며, 한미 양국에서 일자리와 투자의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양국 의회의 FTA 비준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인 대다수가 이 협정을 지지하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쪽에서도 강력한 지지 의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미 FTA 가 비준된다면 이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되어 이미 굳건한 양국의 관계를 앞으로 수십년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저는 주한미국대사관이 한미 FTA 타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 협상팀의 전문가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양국 관계에 단지 경제적인 것만도, 또한 경제 중심적인 것도 아닙니다. 양국의 군사동맹 역시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양국 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계속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올해 초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5년내 즉, 2012년 4월까지 이양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며 양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이뤄낸 놀라운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좀더 균형잡힌 책임 분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전작권 이양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예방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2만 9천명에 이르는 강력한 주한 미군 주둔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한미군의 재편과 기지 및 시설의 반환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액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5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기지 및 시설 36곳을 폐쇄했고, 이중 30곳을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이들 기지와 더불어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해 우리는 한국측에 기지 내의 모든 건물들, 고정 자산, 그리고 개량 시설들을 무상으로 반환했습니다.

양국은 군사 동맹을 넘어 놀라운 인적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내 많은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교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1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에는 한국인 및 한국계 교민 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연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거나, 친척이 미국에 살거나, 미국에 자주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는 워싱턴에 있는 미 의회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미국인은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60년 넘는 기간동안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존재로서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 정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민주적인 자유 시장인 한국과의 관계를 동북아에서의 우리의 이익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양국은 힘을 합쳐 한반도의 평화 유지, 북한의 비핵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력한 양국관계라는 기둥을 갖는 것은 더없이 든든합니다.

좀더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의 노력 부분입니다. 9.19 공동성명 실행을 위한 2.13 초기조치 합의는 중요한 조치였고

현재도 중요한 조치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강력한 합의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과 다른 5개국이 서로간에 맺은 구체적인 '행동대 행동'의 약속을 명확한 시한과 함께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다음 단계의 큰 틀을 제시하여 향후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2.13 초기조치 합의는 북한에 분명한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비핵화와 이를 통해 얻게 될 혜택이냐, 아니면 더욱 심화된 고립이냐 사이의 선택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자금 송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2.13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이 지연돼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행 업무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로 인한 지연이 합의 이행 추진력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초청할 계획이고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노력이 완료된 후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의거해 폐기 대상인 모든 핵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신고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으로 볼 때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갈 준비가 되어있다면 미국도 2.13 합의에 명시된대로 북한과의 완전한 외교관계 정상화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삭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또한 관련국과 함께 협력하여 한국전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하지만 이에 앞서 북한이 먼저 핵프로그램으로부터 결단력있게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2.13 합의의 실행은 여전히 핵심적이며 미국은 이를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6자회담이 이루어낸 성과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 회담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뤄낸 것을 말입니다. 6자회담은 처음으로 이 지역 국가간에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6자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담에 참석했던 저의 동료들이 말하기를 2월에 있었던 6자회담에서 한국 대표단은 리더십과 창의력을 발휘해 회담이 거의 결렬될 것처럼 보이던 순간에 초기 조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약속 이행과 연계해 북한에 대한 연료 및 기타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이 6자회담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준 의장국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을 주재한다는 사실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리하고 때로는 실망스러웠던 베이징에서의 협상 기간 동안 무한한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전례없는 지역 협력에 참여하게 된 것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며 이 협의체의 지속적인 발전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일관적인 대 한반도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둘째,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의 수단으로서, 또 북한에 자유시장 경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포용 정책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남북경제협력추진 회의에서 합의된 보다 높은 수준의 포용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관료들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협력의 증가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합의 사항 진전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 쌀 지원을 포함한 포용 정책의 지속적인 성과는 2.13 합의의 지속적인 진전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고무되어 있습니다.¹

저는 한국과 미국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일관되고 상호 보완적인 대북 정책을 유지하여 6자회담과 남북 협력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룬다면 우리 모두와 발전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비핵화의 진전 상황과는 별개로 포용정책을 지속한다면 긴장상황의 주요 원인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저해하고 있는데도 마치 평화적인 화해를 증진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관계는 철도 선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쪽 철로가 남북 협력이고 다른 한쪽은 비핵화의 진전입니다. 열차는 양쪽 철로 모두를 딛고 달려야 합니다. 5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남북 열차 시험 운행도 이를 바탕으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한국의 정책은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이며, 대북 포용정책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1만명의 탈북자들은 분명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자녀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미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탈북자들을 환영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몇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한국이 여전히 우선 목적지라는 점을 이해하며 이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공통된 문화, 역사,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¹ 4월 24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13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미래를 보기가 힘들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쌀 지원에 대해 동정적이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재정착하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폐쇄된 북한 사회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포용정책의 성과는 북한을 드나드는 정보량이 증가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북한 내 상황에 대해 보도하는 한국 기자들을 존경하며,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신문에서 경제 상황이나 보건 문제 등 북한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언론에 의지해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북한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언론의 자유가 부족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책임있는 방식으로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액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한국 NGO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포용이 늘어나면 북한 주민에게 제공되는 한국에 대한 정보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용 DVD나 책, 잡지, 더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상황이 허락 한다면 민화협 정의장님께서 촉구하셨던 ‘남북한 간의 활발한 민간 교류’와 같은 학생과 교사의 학습 교류를 통해서 말입니다. 즉, 포용 정책은 주로 대북 지원으로 귀결되는 정부 관료들간의 만남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좀더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되어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을 늘려 양측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대북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복지와 인권 상황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번 주가 미국에서 북한 자유 주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은 4월 27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의 박탈이 갖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가 모든 한민족에게 자유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은 국내에서는 존엄과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이웃 국가와도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얻고자 애쓰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가을, 몇년간 기권하던 한국이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저는 6자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양자간에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함께 노력하여, 북한이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다함께 한발 뒤로 물러서서, 동북아를 남북한, 중국, 일본, 극동 러시아, 그리고 이 지역에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서로 겹치는 원을 이루는 하나의 지역으로 봅시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의 커져가는 경제적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한중일을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23%), 세계 소득의 18%, 세계 교역의 14%를 차지합니다. 거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이 지역의 중요성에 그 의미를 더합니다. 중국의 수출은 2005년 76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2001년 이후 186% 오른 것입니다. 동일한 4년의 기간동안 한국의 수출은 89% 증가하여 현재 3천 여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일본의 경우 47% 증가했습니다. 동북아 지역내 교역 또한 눈에 띄게 확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중간 교역은 2006년에 1180억에 도달했으며 이는 1992년 공식 수교 직후 양국 교역액인 50억달러에서 24배 증가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취임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한때 현대 세계의 변방에 있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 경제 동력의 근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 및 투자 결정으로 가속화되는 경제 통합이 동북아 내에서 진행중입니다. (북한은 예외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통합을 우호적인 발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이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국인이 한미 FTA에 열광하는 한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제 통합이 더 큰 정치 통합으로, 지역내에서 더 밀접한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민간부문과 정부가 이런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한국민과 북한주민들은 스스로를 보다 광범위한 동북아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두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다국어룰 구사하는 최우수 학생에게 “동북 아시아 장학금”을 주고 각국의 명문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선택에 따라 인턴쉽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동북 아시아인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혹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유럽에서 진행중인 방식입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유럽연합 여권을 소지하고 각국의 대학에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듣습니다. 동북아 장학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7월마다 열린 ‘한중일 미래 지도자포럼’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포함시켜야겠지요.

두번째 아이디어로, 지역 국가들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게 어떨까요? 공동 연구소를 통해서 대체 연료나 재생 에너지를 함께 연구하는 것 말입니다. 이 지역의 최고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고 각국이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동북아의 거대한 에너지 시장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석유 및 가스 공동 프로젝트나 수송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 지역의 공동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가치있어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뿐 아니라 이 지역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설에서

일본의 아소 타로 외상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한중일 간 협력은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아이디어를 진전시키기 위해 핵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2006년 11월 회담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공동 성명의 일환으로 양국이 “아시아에서 평화, 안정,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은 이미 우리를 한데 끌어모았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통합 과정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한 협력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항구적인 협력체의 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경제, 군사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 양자 동맹과 민주주의, 인권, 자유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 공고한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양질의 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에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통된 노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기둥입니다.

둘째로, 저는 6자회담과 남북 포용정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조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모두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함이고, 두가지 모두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뒤이어,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그 목표를 뛰어 넘어 모든 동북아시아 사람들간에 더 큰 통합과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곳을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